

산업 한국계육협회 (Korea Broiler Council)

발행인 : 김 홍 국 편집 : 이 재 하

(우137-044)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

☎ (02)536-9855~6 FAX(02)595-6028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 (02)263-3598

제3권 제2호 통권20호

### 계육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 수입자유화 대비 최종점검 필요할 때

오는 7월 1일부터 냉동 닭고기가 수입 자유화되며, 이로써 우리나라 닭고기시장이 완전 개방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시작되면서, 지난 10년 가까이 다른 축산물과 함께, 닭고기 수입자유화에 대비하여 상당한 준비를 해왔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시장 자유화를 불과 넉달을 앞두고 우리 계육산업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여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우선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계육산업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차분히 검토하여 볼 일이다. 그동안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을 했다.

닭고기 생산액이 경상가격으로나마 두배 가량 늘어났고, 정부의 시설자금이 대폭 지원되면서 계사 규모가 커지고 시설 자동화로 사육규모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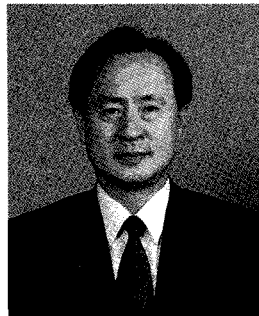
계열화 사업 붐이 일어나 이제는 계열업체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섰고, 계열사업체들의 주도하에 외식 닭고기 판매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닭고기 소비 저변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등 업계가 질적인 발전을 하여오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닭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바로 눈 앞에 두고, 그동안 정말 중요한 경쟁력 수준은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 바꾸어 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비 절감은 얼마나, 그리고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고질적인 산지 닭 가격의 불안정 문제는 얼마나 진정이 되어왔는가에 대하여서는 낙제점을 피할 수가 없다.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시설 규모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육규모가 커졌으나, 기대하였던 생산비절감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닭고기 평균생산비는 아직도 9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장 개방이 앞으로 몇 달 안 남았는데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산지 닭가격의 빈번하고 큰 폭의 변동도 여전하다. 지



유철호 박사

농경연수석연구위원  
본회 자문위원

난 여름 이후 몇달 동안 계속 침체되었던 닭 가격이. 요즘에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생체 kg에 500원대 까지 폭락하여 입식 병아리 가격에 불과하던 닭 가격이 요즘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3배 이상 폭등하는, 시장 자유화를 눈앞에 두고, 근래 없던 폭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닭고기 시장이 자유화 되면 국내산 닭고기 가격은 국제 시세와 거의 연동이 되어 변동하게 된다.

통닭이나 부분육이나, 냉장이나, 냉동이나 등에 따라 가격 수준과 가격변동 패턴이 다르겠지만, 대체로 냉장상태와

일부 부분육을 제외하고서는, 관세포함 수입닭고기 국내 시판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저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닭고기 시장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국내산 닭고기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 제고도 중요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서둘러야 할 일은 이 시점에서 수입 가격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 수준에서 산지가격을 안정시켜 나아가는 일이다. 국내 가격이 높게 유지 되면 가격이 저렴한 수입 닭고기가 대량 수입되게 마련이고, 이에 따라 국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생산비가 높은 양계농가부터 양계를 포기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더욱 진전되게 되면 경쟁력이 있었다던 업체들도 휘청거리게 마련이다.

국제 닭고기 시세가 매우 안정적임을 감안하면, 최근 몇 달 동안 진행되어온 닭고기 산지 가격의 극심한 변동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국내 닭고기 가격이 국제 가격과 연동하여 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변동하게 되는 시대를 맞아 정부와 관련단체, 업계가 중심이 되어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양계농가가 대량 탈락하는 사태에 대한 대비책 등이 차질없이 가동되도록 최종점검에 나서야 할 단계라고 하겠다.